

고달픈 현실·불안한 미래…그래도 우리 꺾이지 않는다

취업·아르바이트 청년들의 하루



일자리 찾아 거제도에…땀 흘리는 성실한 나날

삼성중공업 근로자 주현규씨

나는 거제도 삼성중공업에서 용접공들의 발판을 제작하는 근로자로 1년 넘게 일해오고 있다.

내 업무는 조선업의 기본인 용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용접공들이 딛고 올라가 높은 높이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족장’을 만드는 일이다. 폭은 2m~4m. 높이는 경우에 따라 수십m까지 올라간다. 안전과 견고성이 생명이다. 선박을 만들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중의 하나다.

나는 같이 일하는 팀원들과 한 아파트에서 합숙하면서 지낸다. 일과는 아침 6시에 시작된다. 간단히 세면을 하고 작업복으로 갈아 입고 바로 출근을 한다. 현장까지는 대부분 다른 근로자들처럼 나도 자전거를 이용한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길을 입김을 내뿜으며 자전거 페달을 밟아 나가노라면 어쩐지 세계최강 조선공업국가란 축을 내가 담당하고있다는 자부심도 든다.

오전 7시, 아침식사가 구내식당에서 제공된다. 수천명의 근로자들이 아침식사를 함께 먹는 장면

은 장관이다. 삶의 열기가 꿈틀거리는 걸 느낄 수 있다. 앞자리에서 국물을 들이키는 저 50대 근로자, 뒷줄에서 묵묵히 식사를 하는 어깨 넓은 저 용접공들이 모두 대단한 장인들로 여겨진다.

삼십분 이내에 아침식사를 마치고나면 사무실에 들어가 출근도장을 찍는다. 지문인식 센서에 엄지손가락을 대는게 출근도장이다. 컴퓨터가 나의 출결상황, 매일매일의 작업강도등을 자동분석해 오는 작업량을 결정한다. 작업지시서가 나오기까지 잠깐 대기시간이다.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담소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생각해보면 광주사람인 내가 이곳에서 일하기 까지 나도 좀 곡절이 있었다. 나는 공고 전자과 출신이다. 바로 취직 할 수도 있었으나 나는 왠지 가방끈을 좀더 늘리고 싶어 전문대에 진학했다. 그러나 전문대 학교생활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랐다. 학업 의욕도 줄어들었다. 고민 끝에 중퇴를 하고 군에 입대했다. 전역을 하고보니 극심한 취업난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기능공이니까 쉽게 취직이 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광주에서는 삼성전자 기

아자동차 엠코테크놀로지 외엔 좋은 직장이 없었다. 몇몇 중소기업도 기웃거리 보았는데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의 수출량이 줄어든 탓인지 그들 중소기업들도 죽을 맛이였다. 있는 직원도 구조조정을 해야하는 형편이었다.

1년 넘게 허송세월을 하다가 결국 광주 밖으로 눈을 돌렸다. 그래서 채용된게 지금의 이 직장이다. 주식회사 ‘덕진’이라는 우리회사는 삼성중공업 외주업체다.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바로 정규직으로 임명되었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있다. 급료는 높은 편이며 기숙사 형태의 아파트가 제공돼 주거문제가 해결되니까 큰 도움이이다. 이렇게 1년 넘게 근무중이다.

직장 동료들은 내 또래부터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다. 사람들이 대화하는 주제도 다양해 무언가 YB와 OB의 세대차가 사라지는 훈훈한 분위기다. 형, 삼촌같은 동료들과 나이를 뛰어넘어 친구처럼 지낸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일이 본래 자신이 원하는 직종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나도 전자과를 나와 육체노동을 하고있으니 다들바 없다. “일단 돈이 급해서 왔다” “목돈 마

련을 위해 왔다”, “사업이 망해서 왔다”등등 사연 없는 분들이 없다.

7시 40분 경 업무지시를 받아 현장으로 이동한다. 각 팀원들은 팀장의 인솔하에 근무를 시작한다. 겨울로 접어든 쌀쌀한 날씨, 그러나 작업시작 30분만에 다들 이마에선 김이 뿜개뿜게 피어오른다. 오늘도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12시까지의 현장에서의 시공이 시작되면서 점심시간이 시작된다. 역시 구내식당. 짧은 시간에 수천명의 근로자들이 먹는 점심이다 보니 아침 식사때와는 다른 전쟁통같은 분위기가 연출된다. 1시까지의 꿀 같은 점심시간을 마치고 다시 자전거로 현장으로 이동. 한시부터 오후작업이 이어진다.

아침에 지시 받은 업무를 마치면서 6시에 퇴근하는 사람들을 보니 얼굴에는 오늘도 안전하게 일과를 마쳤다는 웃음꽃이 핀다. 일을 마치고 편의점에 앉아 시원한 음료나 맥주를 한잔 하고 있는 분들 또한 쉽사리 찾아볼 수 있다.

언제까지 이 직업을 통해 생계를 꾸려나갈지 모르겠지만 학창시절 품었던 전자기능공의 꿈을 이룰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과감히 도전해 볼 생각이 다. 지금의 직업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취업 문턱도 못넘은 수백만 청년들을 생각하면 나는 하루 하루를 성실하게 보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진다.

〈최경택 학생기자〉

막연한 취업 불안감 속 주말엔 ‘한잔의 우정’

카페 알바 전남대 안형준씨

“카톡”

토요일 아침, 형준씨는 요란스런 핸드폰 메시지 소리에 잠이 깬다. 오전 11시, “하아…몇시간 못났네” 통명스런 혼잣말로 아침(?)을 맞이 한다. 전날 친구들과 새벽까지 과음을 한 탓인지 머리가 지끈 지끈 아파온다. 4~5 시간 밖에 못났는데 잠이 깨 버렸다. 산뜻한 학점을 위해 한 주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 뒤 맞는 주말인데 몸은 피곤하기만 하다.

형준씨는 공장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한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니 정말 물결이 말이 아니었는지 한숨을 내뿜는 형준씨,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다. 정신을 맑게 하고자 찬물로 샤워를 한 형준씨는 어머니가 다려놓은 셔츠와 이번 겨울을 위해 장만한 파란색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서 담배 한 개비를 태운다. 아침에 피우는 담배는 왜이리 맛있기만 한지 혼자 열은 미소를 지어본다. 담배를 태우고 나니 모닝 커피가 마시고 싶었다. 마침 친구에게 선물 받은 기프트콘이 떠올라 핸드폰을 확인한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이란 문자와 함께 바코드가 찍혀있다. 곧장 스타벅스로 향한 형준씨는 커피를 주문해 햇빛이 잘드는 창가 한 구석에 앉아 커피 한모금을 음미한다.

어머니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취업난 소식에 벌써부터 안달이다. 졸업은 1년 남았는데 취업작전은 잘 짜고 있느냐는 등, 어느직장 어느자리가 좋다는

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느냐는 등 조바심을 내신다. 나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아직 1년이라는 대학생살이 남아있기에 발등의 불은 아닌 셈이다.

“따리링 따리링” 핸드폰 벨소리가 울려 바로 확인하는 형준씨. 친구에게 걸려온 전화, 바로 받는다. “아 어디냐?” “나 지금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는 중” “오늘 양림동으로 강의 들으러 갈건데 같이 갈 생각 있냐?” “그래, 같이 가자.”

오후 2시, 친구가 카페에 도착했다. 형준씨는 친구의 오토바이 뒤에 올라 양림동의 강의 장소에 도착했다. 형준씨는 건물을 보고 놀란다. 외국느낌이 물씬 풍기는 천장이 통유리로 된 오투막집이었기 때문. 그곳은 ‘이상한 직업소개소’ 라는 곳으로 매회 다른 주제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하는 곳이었다.

형준씨와 친구가 듣게 될 강의는 5번째 강연. 주제는 환경이었고 그에 따른 전문가들이 강연을 하는데, 자연 환경을 다시 복구해서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주된 80명과 함께 선순환구조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재건활동을 하는 전문가, 버려진 재료들을 재활용하여 악세사리를 제공하는 전문가, 남은 크레파스를 모아 새 크레파스로 만드는 환경 전문가 세 명이 그들이었다.

강연 중 공통적인 말들은 “인생을 재미있게 살자” 였다. 분명 돈이 되는 직업은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가 환경을 보호 한다는 신념과 함께 그 일을 즐

기는 모습을 보면서 형준씨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구나.’ 느낀다.

그렇게 강연을 듣고 나니 어느덧 저녁 6시. 배가 고파 온다. 친구와 집동네인 봉선동으로 돌아와 다른 친구들을 불러 김밥집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는 형준씨. 그가 시킨 건 5000원 짜리 돈가스, 이것저것 다 사먹고 싶지만 지갑 사정을 보니 여의치 않다. 그래도 친구들과 모두 펼쳐놓고 함께 나누어 먹으니 값 싼 밥도 뷔페처럼 훌륭한 식사가 된다.

식사를 마친 형준씨는 알바 출근시간인 저녁 7시에 맞춰 카페 ‘할리스’로 향한다. 방학동안 벌여냈던 용돈이 바닥나 학기중에 파트타임 알바라도 해서 용돈 벌이를 할 생각이었던 형준씨는 오랜만에 하는 카페알바에 긴장이 됐으나, 직원들이 모두 친한 동네 지인들이라 편하게 배울 수 있어 안심이다.

“안녕하세요~” “안녕, 형준아 왔냐?”

매니저 누나와 간단한 인사를 나눈 형준씨는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손님들을 응대하러 카운터에 선다. 주말인데다 저녁 식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라 그런지 유독 사람이 많다. 음료 주문은 계속 들어오고, 어머니 고객들이 같이 데려온 아이들은 바닥에 음료를 흘리고, 흡연실의 재는 왜이리 빨리 쌓여가는지, 테이블은 왜 이리 어지럽혀 있는지 형준씨는 깊은 한숨을 내뿜으며 하나하나 정리해 간다.

“쉬운 일이 없구나 쉬운 일이…” 나지막히 중얼거리는 형준씨. 방학때 했던 세일즈 일보다 훨씬 스트레스도 덜 받고 쉬운 편에 속하는 일이지만 역시 돈벌이는 마찬가지로 힘들구나 느낀다.



새벽 1시 40분, 2시에 가게를 마감하려면 청소를 시작해야할 시간. 가게 안 손님들에게 미리 마감시간을 안내한 후, 그 밖에 다른 공간을 먼저 청소를 시작한다. 커피머신을 분리하여 청소를 하던중, 손님이 들어와버렸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아이스 바닐라 달라이트 한 잔 테이크 아웃 해주세요” 형준씨 속마음에선 짜증이 난다. 손님이 너무 알찼다. 하지만 인짱은 기분을 손님에게 티 낼순 없다. 분리했던 머신을 다시 결합하여 원두를 갈아 커피를 뽑는다.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손님이 가게 문을 나간 후 가게를 둘러 보는 형준씨. 아까까지 남아 왓지지랄 떠들던 손님들도 어느덧 사라지고 없다. 고요한 가게 안, 형준씨는 한숨

한 번 내뿜고 나머지 청소를 마친다. 새벽 2시 10분, 마지막 손님 때문에 퇴근도 늦어졌다. 가게 문을 닫고 나자, 친구들에게 전화가 온다. “형준아 일 끝났냐? 아직 주말인데 한잔 해야지” “그래 그래, 피곤해 죽겠다. 한잔하자” 약속 장소로 향한다. 카페로부터 80미터 거리 작은 동네 술집에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친구들과 연신 건배를 외쳐대며 술을 들이키는 형준씨. 역시 주말엔 친구와 술이 최고다. 이순간만큼은 학점, 취업걱정, 골치아픈 장래설계 좀 잊어보자. 그간 평일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잊혀진다. 그렇게 또 일상이 반복 된다.

〈전요셉 학생기자〉

작지만 중요한 일들, 내일 위해 내공 더 쌓겠다

호남대 교직원 양채영씨

나는 호남대 졸업생으로 호남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다. 졸업후 모교에 근무하기 때문에 처음엔 내가 학생인지 직장인인지 헷갈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 같은 감정은 근무가 계속되면서 썩 사라졌다.

출근시간은 오전 9시까지. 일반 기업에 비해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다. 취업한 친구들 말을 듣자면 오전 8시까지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오전 7시까지 나가서 업무준비를 갖춰놓아야 하는 친구들도 있다. 그에 비하면 느긋한 편이다.

나도 대학교 4년의 과정을 마치고 학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취업난에 뛰어들 당시, 우리사회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속에 돌아가고있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다행히 모교에 일자리 공고가 났고 여기에 지원해 취업이 되었을 때 나는 ‘학교를 다시 다니는 것 아니야?’하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같은 사치스런 생각은 오래 할 수 없었다. 우리사회는 어떤 직장 어떤 자리라도 부여된 임무를 수행해내지 않으면 바로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죄송 합니다’ ‘주의 하겠습니까’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까’ 따위의 말들은 학생신분이 끝나는 순간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서둘러 출근을 하면서 깔끔한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고 호남대학교 5호관에 있는 교수학습개발원에 도착한다. 교수학습개발원은 호남대학교의 전 교수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교수법을 개발, 전수시키고 학생들에게는 보다 효과적인 수강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기관이다. 당연히 최신 교수법에 대한 자료의 확보와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우수 외래강사 섭외, 교수와 학생들의 참가독려, 새로운 교수법 교육 후 그 성과에 대한 피드백 등이 주된 업무다.

내 자리에 앉아 오늘 해야 할 업무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간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각 부서에 무슨 행사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 내가 책임질 업무들의 체크리스트를 만든다. 전 날 미리 다음날의 업무를 파악해 놓긴 하지만 퇴근후 상황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 예정된 업무도 추가로 준비해야 할 상황도 많다.

주로 오전에는 특강, 교수 워크숍 등 각종 행사들이 있게 되는데 행사장 준비, 개별 컴퓨터 점검, 음향시설 점검, 빔프로젝터 점검, 수강자료 인쇄 배포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행사가 시작되면 행사과정을 녹화, 촬영해서 보존한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교수님들을 위해 폴 동영상상을 추후에 제공해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동영상 파일을 교수님들에게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것은 물론 홈페이지에 올리는 일도 내 임무다. 동료 직원들과 함께 커피 음료 간식을 준비하는 것도 빠뜨리면 안된다. 행사가 끝나면 참석자들에게 앙케이트 페이지를 받는 일도 있다.

이처럼 지금의 내 업무는 작지만 하나하나 섬세하게 진행해야 하는 일들이다. 때문 나의 창의력이나 독창성, 추진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직장인 친구들의 경험담을 듣자면 사회 초년생들의 업무는 대개 이정도 수준이다. 아직 일을 배워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업무가 지루하다고 해서 벌써부터 거창한 일을 해보고 싶어하는 건 건방진 생각일지 모른다.

오후엔 사이버 강의 개발, 재개발과목을 직접 촬영해 제작하는 업무를 맡는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진척을 보여야 하는 일이다. 사이버강의는 특히 방학기간에 촬영 편집이 진행되어 새학기 시작과 함께 론칭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바빠질 시즌이다.

또하나 중요한 업무는 바로 전화 받기다. 주로 교



수님들과 학생들로부터 교수학습 개발원의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는 문의들이다. 홈페이지 이용종 지시서대로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질문도 많다. 모두 하나하나 친절히 응대하고 있다. 내 스스로가 학생시절 느꼈던 의문점들이나 질문자의 심정에서 대답을 해줄 수 있어 좋다.

나는 지금의 이 직업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 일이 내가 꿈꾸던 나의 미래인가 하는 점은 자신이 없다. 나는 이미 취업한 운 좋은 청년이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 더 나은 나 자신을 위해 내공을 더 쌓아야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어느덧 하루하루가 저문다. 업무를 정리할 시간이다.

〈최경택 학생기자〉